

## “곡에 지금 제 모습 최대한 담아냈죠”

2년3개월 만에 정규 3집 '아이앤비유' 발표 처음 데모곡 듣자마자 '이거다'라는 느낌과 각자 상황에 맞게 들을 수 있는 사랑이야기 '갓 더 비트' 유닛 활동 등 빠듯한 일정 소화 절 움직이는 원동력이요? 팬과 저 자신이죠



‘민·들·탱!’

결그룹 소녀시대 멤버로 인기를 모았던 가수 태연(33)은 솔로가수로도 일찌감치 정상을 찍었다. 2015년 솔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레인'(Rain), '와이'(Why), '해피'(Happy), '사계', '위켄드'(Weekend) 등 내놓는 곡마다 대박 행진을 이어 '음원 퀸' '민고 듣는 태연(민·들·탱)'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최근에는 소속사 동료 여성가수들과 프로젝트 유닛 형태로 내놓은 '갓 더 비트'(GOT the beat)로도 성공을 거뒀다. "예상대로"였다.

그리고 다시 솔로로 돌아왔다. 하루 24시간도 부족한 일정이다. 14일 정규 3집 '아이앤비유'(I NVU)를 발표하며 "소처럼 일"하고 있다는 그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정규 앨범은 2019년 10월 2집 '퍼포즈'(Purpose)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에는 오랜 만에 13곡을 빼곡히 담은 앨범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는 "그래서 더 신중히, 열심히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태연은 이날 오후 6시 새 앨범을 선보이기에 앞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저의 모습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때마침 앨범을 내놓은 14일은 밸런타인 데이. 태연은 "그동안 자전적인 의미가 담긴 곡들을 많이 발표했다면, 이번엔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서 "특히 사랑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다각적으로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사랑'은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다.

"사랑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 들을 수 있는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각 상황에 맞는 곡을 찾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너무 뻘한 것이라 느끼지 말고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앨범 동명의 타이틀곡은 부드럽고 몽환적인 신스 사운드와 후렴에 등장하는 플루트 선율이 인상적인 팝 댄스곡이다.

"처음 데모곡을 듣자마자 '이거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만큼 애착이 갔죠. 그런데 회사의 다른 분들에게서는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타이틀곡으로는 약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저 혼자 이 곡을 선택했죠. 일종의 모험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오기와 자존심, 자신감도 생겼더라고요. 납득시켜서 성공하자 생각했어요."

앞서 보아, 효연, 레드벨벳 슬기·웬디, 에스파 카리나·윈터 등 소속사 동료 가수들과 함께 한 '갓 더 비트'는 국내외에서 솔한 화제를 모았다.

"연습하면서도 솔직히 '내 앞에서 보아 언니와 에스파 친구들이 춤을 추네'라는 사실이 재밌었어요. 준비 기간이 좀 짧았고, 친해질 기회가 넉넉하지 않아서 아쉬웠죠.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다가갔어요. 보아 언니가 저에게 리더라고 하기에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내가 리더다' 했어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또 감사하게 짚어지고 갔어요. 한편으론 희열감도 있었어요. '어벤져스 같은데?' 하는 생각에, 심지어 영화도 다시 봤던니까요. 하하하!"

솔로, 그룹, 유닛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그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말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모호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 내 모습이 달라요. 시기와 환경에 따라 다르고, 좋게 말하면 열려 있는 상황에 따라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를 움직이는 건 팬들이고, 저 자신이죠. 나 자신 이 나를 자꾸 자극해요. 그게 절 지금까지 오게 한 거고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오스카 점령한 '넷플릭스 영화'

美 아카데미상 27개 부문 후보 올라 넷플, 韓콘텐츠 제작 8000억원 투자 주원 주연의 '카터' 등 공개 줄대기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영화산업이 침체한 가운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오리지널 영화는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올해 미국 아카데미상의 작품상 등 주요 부문에 OTT 오리지널 영화가 다수 후보에 오르는 등 기세를 토하고 있다. 반면 한국 작품은 일부 제외하고 세계시장에서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낸다.

### ●아카데미까지 점령한 OTT 영화

OTT 오리지널 영화의 높은 위상은 3월 27일 열리는 제84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 라인업이 말해준다. 대표적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는 작품상 부문에 오른 '파워 오브 도그'와 '돈 룩 업'을 포함해 모두 27개 부문에서 후보를 냈다. 유력 작품상 후보로 꼽히는 '파워 오브 도그'는 무려 1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뿐만 아니라 HBO Max의 '킹 리처드'와 애플TV+의 '코다'도 작품상 후보에 지명되는 등 또 다른 OTT 오리지널 영화의 선전도 눈에 띈다.

주요 연기상 후보도 OTT 오리지널 영화의 주역들 차지다. 남우주연상 부문에서는 하비에르 바르뎀(아마존 프라임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 베네딕트 캄버버(넷플릭스 '파워 오브 도그'), 앤드류 가필드(넷플릭스 '틱, 틱...붐!'), 윌 스미스(HB

O Max '킹 리처드'), 멘젤 워싱턴(애플 TV+ '맥베스의 비극') 등이 모두 다섯 자리인 후보석을 꿰찼다.

### ●한국 OTT 영화, 본격 출항

이처럼 글로벌 OTT가 영향력을 키워가는 동안 한국영화계는 감염병 확산과 관객 급감으로 인한 신규 개봉의 어려움 속에 투자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는 등 위기에 놓였다. 이에 '사랑의 시간' 시작으로 일부 영화가 극장을 거치지 않고 넷플릭스 등 OTT로 직행했다. 이 가운데 '승리호'가 '전 세계 많이 본 영화' 10위권에 들었고, '낙원의 밤'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OTT가 제작비를 직접 투자해 만든 오리지널 영화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등 총무로의 일부 흥행 감독들은 드라마 시리즈를 택하기도 했다. OTT는 질적 수준을 검증 받은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과 제작진 영입 등에 힘입어 시장에 안착했다.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콘텐츠 투자를 통해 한국 오리지널 영화를 대거 선보인다. 8000억 원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키로 한 넷플릭스는 최근 공개한 '모럴센스'를 시작으로 주원 주연의 블록버스터 '카터', 유아인·고경표·옹성우·문소리 등이 출연하는 '서울대작전', 영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신작 '정어' 등을 내놓는다. '토종' OTT 웨이브도 주지훈·박성웅 주연 '젠들맨'에 이어 조진웅·김희애가 주연하는 '데드맨'을 공개한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 봄바람 타고 말랑말랑 '로코' 뜬다

(로맨틱코미디)

tvN '스물다섯...' 2회만에 시청률 8% 넷플 한국영화 '모럴센스' 세계 7위에 SBS·KBS2 등 새드라마 줄줄이 선배

안방극장과 OTT 세계에 핑크빛 '봄바람'이 분다. 봄 시즌을 앞두고 로맨틱코미디 작품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안 강세를 보인 판타지·사극로맨스 장르와는 달리 요즘 젊은 세대의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눈길을 끈다.

12일 첫 방송한 tvN 새 토일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대표적이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를 배경 삼은 드라마는 펜싱선수 김태리와 방송사 스포츠기자 남주혁의 로맨스를 담는다.

초반에는 이들이 각각 펜싱부 고교생과 IMF 사태로 부유했던 집안이 몰락한 대학생으로 등장해 인연을 쌓는 과정을 그린 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뜻밖의 첫사랑의 감성과 추억이 공감된다'며 호기심 어린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첫 방송에서 6.4%(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보인 후 다음날 13일 2회 만에 8%까지 상승했다.

11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모럴센스'도 '로코 붐'에 힘을 보탠다. 영화는 직장 동료 사이인 서현과 이준영이 은밀한 성적 취향을 공유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가학적 성적 성향을 가리키는 'BDSM'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지만, 자극적인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집중하면



독특한 성적 취향을 공유한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영화 '모럴센스'가 로맨틱코미디를 새롭게 변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서 로맨틱코미디 장르의 재미와 설렘을 강조했다. 독특한 소재로 관심을 받으면서 14일 넷플릭스 영화 세계 7위(플릭스패트를 집계)에도 올랐다.

이런 흐름은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진다. 안효섭·김세정이 주연한 SBS '사내맞선', 김재욱·정수정 주연의 KBS 2TV '크레이지 러브'가 각각 28일과 3월 7일부터 방송을 시작한다. 이들 드라마 모두 회사를 배경으로 하는 로맨틱코미디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14일 "한동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의 장르물이 주류를 이루면서 최근 가벼운 로맨틱코미디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겨났다"면서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재 변주, 장르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김성주·문세운 확진...방송가 집단감염 우려



김성주

방송인 김성주와 문세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은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방송가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김성주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경미한 인후통 증상을 느껴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진행해 양성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성주는 18일 채널A·SKY '강철부대 2' 온라인 제작발표회 녹화를 미뤘고, MBC '복면가왕', JTBC '몽처야 찬다' 등의 일정도 조정할 예정이다. 문세운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후 KBS 2TV '1박2일' 시즌4, iHQ '맛있는 녀석들' 등의 촬영을 취소했다.

#### 18개국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해외의 한국 콘텐츠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2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드라마(53.5%), 영화(51.8%), 예능(51.5%) 등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류 소비자들 중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와 가수에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21.2%)과 방탄소년단(26.7%)이 꼽혔다. 배우 이민호, 영화 '기생충'은 배우와 영화 분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18개국의 한국 문화 콘텐츠 경험자 8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진행됐다.

#### 엑소 수호 소집해제...SNS에 손편지



엑소 수호가 전역 소집을 맞아 개인 SNS로 공개한 자필 편지. 사진출처 | 수호 인스타그램

그룹 엑소 수호가 14일 소집 해제했다. 이날 수호는 개인 SNS를 통해 "1년 9개월이란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어 꿈에서도 콘서트를 한 적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이 시간을 뛰어넘어 무대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호는 2020년 5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시우민, 디오에 이어 엑소 멤버 중 세 번째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

#### 김선호, 백혈병어린이재단에 5000만원



김선호

배우 김선호가 지난해 12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김선호는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14일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부에 대해 "배우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전 여자친구의 폭로글로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김선호는 '마녀' 박훈정 감독이 연출하는 액션영화 '슬픈 열대'로 복귀한다.

#### 송가인, 한국문화재단 홍보대사 위촉



송가인

가수 송가인이 한국문화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국문화재단은 14일 "앞으로 재단의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가인은 최근 서울 중구 '국악의집'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여해 "국악인으로서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송가인은 중앙대에서 판소리를 전공했다. 또 어머니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송순단 명인이고, 친오빠는 아쟁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다.